

# 중장년 절반 이상 무주택자...60%는 은행빚 있다

### 소유주택 가액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최다 대출잔액 증양값 5천800만원...집 있으면 3.3배 ↑

만 40~64세 중·장년 인구 절반 이상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60%에 육박했으며 이들의 대출잔액 증양값은 전년보다 12% 급증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중·장년층 인구는 지난해 11월1일 기준 2천1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만6천명(0.5%) 늘었다. 전체 내국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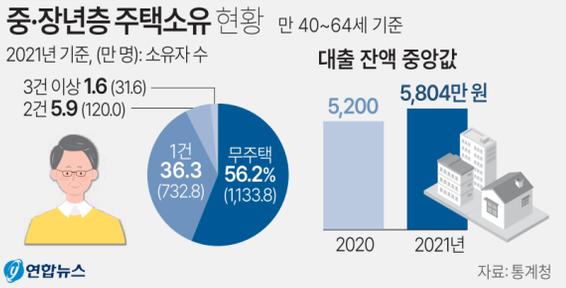
구의 40.3%를 차지한다.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884만4천명) 비중은 43.8%로 1년 전보다 0.7% 포인트(p) 높아졌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친다.

주택 소유 비중은 60대 초반이 46.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떨어져 40대 초반은 39.7%에 그쳤다.

자녀를 포함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가구 비중은 64.6%로 집계됐다.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자산 가액



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이 2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25.8%)로 나타났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중

·장년층 비중은 12.6%로 전년보다 3.1%p 높아졌다.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은 57.3%로 0.8%p 높아졌다.

대출잔액 증양값도 5천804만원으로

11.6% 급증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대출잔액 증양값은 1억16만원으로 무주택자(3천19만원)의 3.3배 수준이었다.

중·장년 등록취업자(4대 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되는 취업자)는 1천340만2천명으로 중·장년 인구의 66.4%를 차지했다.

임금근로자가 77.8%,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7.9%,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4.3%였다.

중·장년 인구의 77.1%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고 평균 소득은 3천890만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남자의 평균 소득은 5천26만원으로 여자 평균 소득(2천493만 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합뉴스

## 투데이 경제

### 무안 ㈜보삼바이오산업 '중기부장관상'



무안 식품제조업체 ㈜보삼바이오산업(대표이사 박규리·사진)이 최근 열린 '2022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2022년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중 광주·전남에선 유일하게 ㈜보삼바이오산업이 벤처활성화분야 벤처기업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보삼바이오산업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원자수소수 핵산효소의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수소, 효소 관련 제품 등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이다.

/양시원기자



**판로 개척 '한마음장터'** 사회적기업들이 판로 개척을 위한 '가치사채 한마음장터'가 20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화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구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각종 수공예품과 식품류, 농산물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했다.

/김애리기자

##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5년새 41% 증가

### 1-3분기 평균 36만8천명...청년·고령층 부업자도 늘어

올해 부업을 댄 가구주 근로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부업자는 36만8천명이었다.

가구주 부업자는 전체 부업자(54만7천명)의 67.3%를 차지했다.

2017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는 41만1천명, 가구주 부업자는 26만1천명으로 각각 올해 33.1%, 41.0% 증가했

다.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비율은 2017년 63.5%에서 올해 67.3%로 상승했다.

평균 주업 근로시간과 부업 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업 근로시간은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감소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부터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했다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연령대별 부업자 추이를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3분기 평균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8천명에서 2022년 10만7천명으로 37.2% 증가했고, 60대 부업자는 7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69.7% 증가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전KPS,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 앞장

### 전직원 산업부 '에너지 다이어트 10' 동참 캠페인

한전KPS가 겨울철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일 한전KPS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 다이어트 10'에 적극적인 동참을 선언하고 ▲실내 난방 17도 이하 유지 ▲전국 사업소 권역별 난방기 순차 가동 중지 ▲업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 안하기 ▲광고나 장식 조명의 심야 시간 소등 ▲실내 조명의 업무시간 30%·전력피크시간 50% 소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직원이 이 같은 에너지 절감 시책에 동참하도록 본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절감 조치를 설명하는 출근길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개별 사업소에서는 캠페인과 함께 정부에서 제시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공유했다.

더불어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해 사내 업무망,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 오비맥주, 전국 행복도서관에 성탄선물

오비맥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국의 '행복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Happy Library)' 10개소의 400여명의 아동을 위한 '사랑의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와 임직원 나눔 봉사단 30여명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양말, 카스 맥주 박으로 만든 산타·트리·루돌프 모양의 아이싱 쿠키3종과 리너지바, 초콜릿, 캔디 등으로 구성된 1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선물' 꾸러미 400개를 직접 제작했다.

/박은성기자

## 산단공 광주본부 '광주·제주 산학연협의체 포럼'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9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이하 MC) 회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 광주·제주 자율형MC 최종 성과공유 비즈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비즈포럼은 올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날(9월14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제주 자율형MC(6개)의 2년간 사업 성과 및 MC별 우수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산업기술 동향과 디자인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올해 광주·제주 자율형MC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연구개발(R&D) 18건(35억

원) 및 지식재산권·시제품·마케팅·기술이전 등 전·후방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R&BD) 104건(5억원)을 지원했다.

또 B2B제조거래센터·기업성장지원단 운영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경영상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23년에도 자율형MC 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단지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노력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 전남신보 '물 절약 캠페인' 실시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을 통한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실천사항은 ▲양치컵 사용 ▲모아서 빨래 ▲설거지 물 받아서 하기 등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7가지다.

/기수희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